

전주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전면 개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 토대 단계적 운영 계획

전주시가 생활쓰레기 문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전주시는 잔재쓰레기가 없는 청결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편은 △공경쟁입찰을 통해 모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를 다시 선정해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부 직영지역의 단계적 민간이전과 업체 수 및 청소구역 조정, 잔재쓰레기 수거업체 지정 등을 통해 보다 저비용·고효율 수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시는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온 모든 성상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다시 선정키로 했다.

현재 전주시와 계약을 맺고 있는 14개 성상별 수거업체는 최대 35년에서 짧게는 9년까지 장기계약유지하고 있다. 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수거업체의 전면 재선정을 통해 업체선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또 앞으로 선정되는 수거업체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신개념 지식콘서트 개최

신개념 지식콘서트 ‘테크플러스(tech+) 전북2016’이 20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가운데 송하진 지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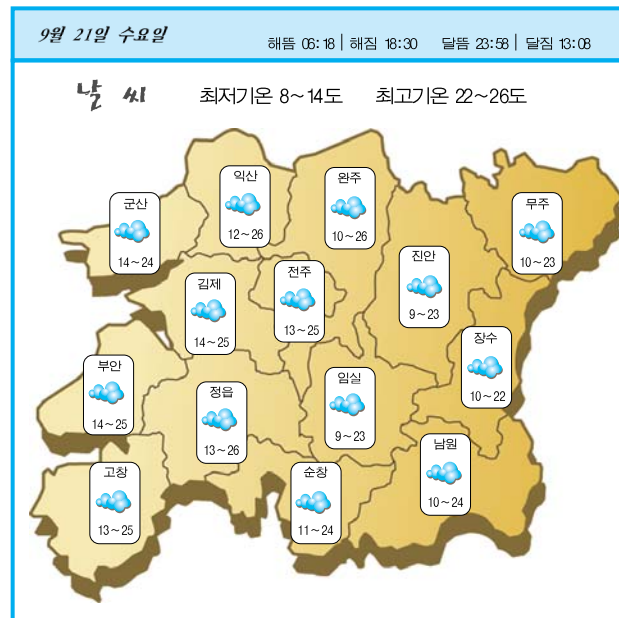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고 노무비 정산 등을 통해 투명한 업체 경영을 유도하는 등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 전주만의 청소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편을 통해 면적과 인구, 폐기물 발생량 등이 유사한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해 인원과 장비를 과다 운영하는 전주시의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

다. 이에 시는 대행업체 이용 시보다 많은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일부 직영관리 지역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민간업체에 맡길 계획이다. 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기존 14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중 공동주택 일반쓰레기수집·운반업체를 2개 줄이는 대신, 시 소속 환경관리원과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체간 청소구역을 조정

을 통해 기존보다 저비용·고효율의 수거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시는 그간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 위에 적치되는 잔재쓰레기로 인한 시민불편을 없애기 위해 페스티로폼과 폐페인트 통, 페타이어 등 각 품목별로 수거처리업체를 지정하고,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에 혼합단가를 적용한 대행비를 지급하는 등 해당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재기자



도교육청, 2017년 혁신학교 공개모집

전북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혁신학교를 20개교 이내로 공개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초등학교는 19학급 이상의 학교가 대상인데 지난 6년간 소규모 농촌학교의 혁신모델이 많이 창출된데다 학교 혁신이 전반적으로 확산된 만큼 대규모 학교의 학교 혁신모델을 창출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계획이다. 중학교는 초등 혁신학교와 연계하는 혁신학교 벨트화에 적합한 학교, 고등학교는 혁신학교 벨트화는 물론 교사들의 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진로 진학교육에 힘을 쓸 수 있는 학교를 우선 선정해 지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7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관심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계획 설명회를 갖고 10월 중순까지 모집 절차에 들어간다.

또 별도의 심사위원을 꾸려 혁신학교 운영계획서와 학교 방문 면담평가를 거쳐 11월초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149개의 혁신학교가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정된 학교는 내년 3월1일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혁신학교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마을 정체성 찾는 ‘전주시 마을조사’ 속도 낸다

오는 2018년까지 전주시 33개동 전체 순차적 진행 계획

전주시가 시민들의 기억과 추억을 수집해 전주시 33개동의 마을이야기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전주시 마을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문화재단 전주시마을조사단은 지난해 중앙동과 풍남동, 농소동, 팔복동 등 4개 동에 대한 마을조사에 이어 올해 완산동과 동서학동, 서서학동, 진북동, 덕진동 등 8개동에 대한 마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전주시마을조사단은 오는 2018년까지 전주시 33개동 전체에 대한 마을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전주시마을조사사업은 33개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속속들이 박힌 주민들의 이야기와 주요 사진, 추억 장소와 공간 등을 수집한 뒤 전문가들의 조언과 자문을 통해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전주시마을조사단은 이번 마을조사를 통해 △동네어귀의 잠깐 △점방을 지키던 주인 할머니의 편찬 △골목의 풍경과 나서 △길가에 평상 위에 웅기종기 모여 앉아 동네의 이력서인 이야기를 풀어놓는 아주머니들의 모습 등 전주사람들의 소소한 생활의 감

성과 정서들을 수집하게 된다. 이렇게 수집된 내용들은 마을이야기 콘텐츠에 어떻게 담아내고 풀어쓰고 공유할지에 대해 시민 및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위해 마을조사단은 이야기 제보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이야기의 화자 또는 주체로서 동네의 이야기를 직접 제보하고, 이야기 학교를 통해 동네 이야기를 수집하는 일명 ‘동네이야기 박사’를 발굴해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마을조사를 통해 각각의 동네와 마을에 대한 전주사람의 기억과 추억을 수집해 전주시 33개 동별로 특화된 마을(동네)이야기 콘텐츠를 발

굴해 이를 마을주민과 관광객 등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전주시마을조사단 관계자는 “기초문헌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그리고 시민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이야기와 장소는 전주시의 마을이야기 빅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전주시 마을의 특색과 다양한 이야기를 찾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네이야기 제보 및 자세한 문의는 전주문화재단 마을조사단(063-283-9221, 이메일=maul33@naver.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영재기자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기양성사업단

천연담아 등 도내 6개 기업과 업무협약

해외바이어 발굴·시장개척 등 각종 인프라 지원

전북대학교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기양성사업단(GTEP, 이하 사업단)은 최근 (주)천연담아를 비롯해 (주)디자인농부 (주)착한음식, 하늘무역, (주)울지다, (주)에어랩 등 6개 도내 기업들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사업단은 이들 기업에게 해외 바이어 발굴과 해외시장 개척, 수출상담 지원 등 수출을 위한 각종 인프라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사업단 소속 학생들을 적극 참여시켜 학생들이 무역 현장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대부분 도내 대표적인 농식품 제조 회사들로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업임에도 여건상 회사 내에 무역전문 사원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단의 수출 지원이 절실한 업체들이다.

김민호 사업단장은 “이번에 협력하게 된 도내 중소기업들은 해외 수출에 있어서 초보 기업들이기 때문에 향후 밀착 지원을 통해 수출 애로 해소와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Hello, Modern
군산시간여행축제

근대, 추억을 만나다

군산시간여행 축제

2016.9.30 Fri ▶ 10.2 Sun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및 월명동 일원

군산시 GUNSAN CITY
시간여행문의 관광진흥과 T. 063) 454-3343 festival.gunsan.go.kr

*시간여행 드레스코드(교복·양장 등)에 맞는 복장으로 행사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